

중국에서의 〈춘향전〉 수용과 연구 현황*

조성진**

1. 들어가며
2. <춘향전>의 번역과 수용
3. <춘향전> 연구의 현황 : 성과와 한계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 고전인 <춘향전>을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예술적으로 수용한 사례들과 더 나아가 학문적으로 연구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춘향전>이 중국에서 번역 출판된 판본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춘향전>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1954년 월극 <춘향전> 공연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아울러 김인순의 창작 소설 <춘향>의 대략적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 글은 중국에서 제출된 박사 논문 1편, 석사 논문 14편, 그 외 학술지 소논문 46편 정도를 대상으로 <춘향전> 연구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국 쪽 연구는 주로 춘향의 인물 형상, 언어 표현, 주제의식, <춘향전>에 나타난 민족의식, 중국 문학 또는 문화와의 비교 방면에 관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비교문학 연구방법을 채택한 논문이 많다는 점이 특징인데, 중국의 일방적 영향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의 주체적

* 이 논문은 2016년도 광주과학기술원의 재원인 GRI(GIST연구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수용이란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와 함께 한계가 적지 않다.

핵심어: 춘향전, 월극 춘향전, 춘향전 연구.

1. 들어가며

누구를 인용할 것도 없이 <춘향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전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춘향전>은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으며 여러 문화예술 장르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끊임없이 재창작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살아 있는’ 고전이다.

이런 사정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춘향전>은 1954년 8월 1일 중국 상해에서 월극 <춘향전>으로 개작·상연되면서 중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¹⁾ 이 공연을 관람한 수많은 중국 인민들은 조선의 이야기 <춘향전>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 <춘향전>이 중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중국인 학자들의 연구도 뒤를 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영화와 음반, 그림책 등의 문화콘텐츠 형태로 <춘향전>이 중국에 수입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현대 중국의 새로운 ‘고전[經典]’의 지위를 갖기에 이르렀다.²⁾

이 글은 우리 고전 <춘향전>이 중국에서 예술적으로 수용되고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 그 성과와 한계가 지닌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국에서의 <춘향전> 수용과 연구’라고 할 때 ‘중국에서의’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중국인 연구자가 중국어로 중국 학계에 제출한 연구’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

1)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공연 전에도 외문(外文)이 장혁주의 일본어 희곡 <춘향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藝文志』에 실은 일이 있고 <춘향전>을 소재로 한 최승희(崔承喜)의 발레 공연과 임소향(林素香)의 오페라 공연이 있었다. 하지만 월극 <춘향전>만큼 중국의 인민 대중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2) 金長善, 『중국에서의 <춘향전> 번역 수용 연구(1939-2010년)』, 서울: 역락, 2014.

째, 중국 국적을 지닌 재중동포(조선족)가 한국어/조선어로 중국 학계에 제출한 연구는 ‘중국에서의 연구’로 볼 수 있을까. 둘째, 중국인 연구자가 한국에서 한국 학계에 발표한 것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 셋째, 한국인이 중국 학계에 중국어로 제출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사실 이 연구에는 이처럼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세 번째 경우는 아직 해당 연구 사례가 없어 논의로 할 수 있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국인 연구자의 문제의식’, 아울러 그 연구가 ‘중국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수용과 변용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중국인 연구자가 중국어/한국어로 중국 학계에 제출한 연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³⁾ 따라서 중국인 연구자가 한국어로 한국 학계에 제출한 연구 결과는 여기에서 제외한다.⁴⁾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춘향전> 수용과 연구 전반을 다룬 한국 쪽 연구는 거의 없었다. <춘향전> 번역에 대한 연구⁵⁾나 월극 <춘향전>에 대한 연구⁶⁾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학청산의 『중국에서의 <춘향전> 수용에 대한 연구』⁷⁾는 중국인으로서 갖는 연구 제약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번역과 수용, 학술적 연구 전반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춘향전> 수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칠 뿐, 비판적 문제제기나 분석적 고찰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는 별다른 근거를 대지 않고 단순 사실을 나열하고 반복하는 서술 방

3) <춘향전> 관련 중국 쪽 자료나 논문은 ‘중국 지식 인터넷, 전 세계 가장 큰 디지털 도서관 (中國知網全球最大的數字圖書館)’이라고 부르는 ‘知網空間’에서 ‘春香’이란 검색어를 사용하여 찾았다. 누리집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cnki.com.cn

4) 예를 들어, 곧이어 인용할 金長善(Jin, Changshan), 王飛燕(Wang, Feiyan), 학청산(Hao, Qingshan)이 그렇다.

5) 왕비연, 『1956년 북경 작가출판사에서 출판한 <춘향전>의 번역 양상에 대한 고찰』, 『민족어문학회』 71, 2014; 왕비연, 『許世旭 역본 <春香傳>의 번역양상에 대한 고찰』, 『중국학논총』 43,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4; 왕비연, 『春香傳의 中國語 翻譯 및 變容의 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6) 양희석,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 越劇<春香傳>初探』, 『공연문화연구』 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3, 439-456면; 이진원, 『월극(越劇) <춘향전(春香傳)>과 창극(唱劇) <홍루몽(紅樓夢)> - 중국 희극과 한국 창극의 교류에 관한 소고』, 『판소리연구』 16집, 판소리학회, 2003, 113-138면; 윤진현·이사유, 『월극 <춘향전>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41집, 민족문학연구소, 2009, 283-308면.

7) 학청산, 『중국에서의 <춘향전> 수용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향후 문제가 될 소지를 남긴 것 같다.⁸⁾ 또한 중국 쪽 연구를 다 살핀 것도 아니다.

金長善의 『중국에서의 <춘향전> 번역 수용 연구(1939-2010년)』⁹⁾는 중국에서 생산된 <춘향전> 관련 자료를 대거 모아 놓고 있다. <춘향전>이 월극 춘향전으로 개작된 뒤, 다시 중국의 여러 다른 전통극으로 개편되며 극본이나 소설로 번역된 과정, <춘향전> 관련 영화와 그림책, 음반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수입 번역되는 양상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춘향전>이 중국에서 문화·예술적으로 수용된 현황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집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텍스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그저 자료를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춘향전> 연구의 현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

한편 王飛燕의 『春香傳의 中國語 翻譯 및 變容의 樣相』¹⁰⁾은 <춘향전>의 중국어 소설 번역본과 희극 개편본을 대상으로 번역과 개편 양상을 살피고 그 한계와 의의를 세밀하게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들 번역본 사이의 차이를 살피는 데 참조할 만한 연구이다. 다만 이 역시 중국에서의 <춘향전> 연구사 전반을 다룬 연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춘향전>이 중국어로 번역되거나 예술적으로 수용된 것을 연구한 사례는 있어도 중국 연구자들의 학술적 연구 현황을 고찰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 글은 중국에서 <춘향전>이 어떻게 번역되고 예술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핀 다음, 학술적 연구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원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느냐가 수용과 연구의 관건이므로, 번

8) 다음 예를 들 수 있다. 학청산은 <춘향전>이 현재에도 중국 전통극을 포함, 여러 예술 장르로 개편 공연되고 있다고 얘기(4, 17-8면)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춘향전>이 唐詩를 인용한 것이 40여 편에 이르고 중국 전고가 인용된 것이 100여 곳, 중국 역사 인물을 인용한 것이 80여 명이라고 언급한 것(32-33면)은 출처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王惠(2007: 89)를 인용한 崔美玲(2010: 10)의 문장과 흡사하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김장선(2014: 213)이 학청산의 연구가 '가장 성취 있는 논문'이라고 한 평가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9) 김장선, 『중국에서의 <춘향전> 번역 수용 연구(1939-2010년)』, 서울: 역락, 2014.

10) 왕비연, 『春香傳의 中國語 翻譯 및 變容의 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역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춘향전>의 번역과 수용

2.1. <춘향전> 번역

지금까지 나온 <춘향전> 중국어 번역본은 다음 표와 같다. 각 번역본의 특징적 차이나 번역 양상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므로, 여기에서는 번역 관련하여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해 두는 것으로 한다.

	서지 사항	저본
①	外文, <春香傳>, 滿洲文藝家 編, 『藝文志』(創刊號), 長春: 月刊滿洲社, 1939.6.	장혁주의 일본어 희곡 <춘향전>
②	莊志 改編, 『越劇劇本<春香傳>』, 新文藝出版社, 1955.	창극 <춘향전> 대본
③	冰蔚·張友鸞 譯, 『春香傳』, 北京: 作家出版社, 1956.	완판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④	[韓]許世旭 驛, 『春香傳』, 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67.	완판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⑤	[韓]柳應九 譯, 『春香傳』, 北京: 新世界出版社, 2006.	완판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⑥	薛舟·徐麗紅 譯, 『春香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0.	완판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송성욱 풀어 옮김, 민음사, 2004)

먼저, 위 표에서 주목할 것은 <춘향전> 텍스트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많이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이 판본이 이야기와 사상 내용이 풍부하고 가장 인기 있다는 그 ‘자료적 가치와 역사적 위치’ 때문일 것이다.¹¹⁾ 韋旭昇 역시 19세기에 출판된 완판 <열녀춘향수절가>를 善本으로 평가하였다.¹²⁾ 그런데 사실 완판 84장본에 관한 높은 평가는 위 번역본의 역자들이 이미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¹³⁾

<춘향전>이 번역된 가장 이른 사례는 ①에서 만주국의 중국인 작가 外

11) 崔美玲, 『<春香傳>의 中國文化因子』, 吉林: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10.5, 6頁.

12) 韋旭昇, 『韓國文學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

13) 왕비연, 『春香傳의 中國語 翻譯 및 變容의 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6-7면.

文이 장혁주의 일본어 희곡 <춘향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藝文志』 창간호에 실은 것이다. 外文(원명 單賡生, 1910-?)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창한, 만주국 양대 유파의 하나인 예문지파의 동인이라고 하는데, 그가 쓴 <春香傳譯後誌>에 번역의 계기나 배경이 실려 있다.¹⁴⁾ 그런데 ‘만주 극단의 참고’ 정도로 쓰일까 싶어 번역했다는 언급을 보면, 그가 과연 <춘향전>의 문학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이 번역본이 실제 만주국의 중국인 극단에서 공연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니, 중국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번역본 ②는 莊志가 창극 <춘향전> 대본을 월극 극본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는 번역의 과정에서 최대한 원작의 정신과 풍모를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물론 민족의 성격이 같지 않고 생활습관이나 언어가 달라 작품을 감상하는 습관도 다를 수밖에 없어, 장면 배치와 인물 성격 방면에서 약간의 취사와 보충이 있었음을 덧붙였다.¹⁵⁾ 번역본 ③은 한족인 冰蔚(본명 陶炳蔚, 1930~2013)이 번역하고 張友鸞이 윤색한 것이라 하다. 빙울은 1950~60년대에 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번역했던 전문 번역가이다.¹⁶⁾ 한편 빙울은 木弟와 <춘향전> 번역본을 내기도 했다.¹⁷⁾

번역본 ④는 한국문학 연구자이면서 시인이고 수필가였던 許世旭(1934~2010)이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박사공부를 하면서 『作品』이란 잡지에 52회에 걸쳐 연재했던 것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인이 중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¹⁸⁾ 번역본 ⑤는

14) 김장선, 앞의 책, 19-30면.

15) “改編時儘量保持原著之精神・風貌，但由於民族性格不同，生活習慣和語言的不同，也由於欣賞習慣上的某些不同，因此在乘此安排，人物性格方面會做若幹取捨或者補充。”(莊志, 『前記』, 『越劇叢刊』第1集, 上海文藝出版社, 1962.)

16) 왕비연, 『春香傳의 中國語 翻譯 및 變容의 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면.

17) 冰蔚・木弟 譯, 『春香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0. 번역은 물론, 그 서지 사항을 자세히 알기 어려워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1956年 7月 北京 第1版 1960年 8月 北京第1次印刷”이라고 적혀 있어 1960년에 출판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이에 앞서 이미 1956년 출판되었다고 말하는 연구자가 있어 이 점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8) 왕비연, 『許世旭 역본 <春香傳>의 번역양상에 대한 고찰』, 『중국학논총』 43,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4, 475-477면.

한국인 학자가 유응구가 번역한 것으로 완판 <열녀춘향수절가>를 저본으로 삼았다. 姚莉는 이 책이 <춘향전>을 더 잘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번역본으로 지금껏 나온 것들 중에서는 가장 완성하다고 높게 평가하였지만¹⁹⁾, 이러한 평가가 지나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鄭怡鵬은 「目的論視角下的<春香傳>兩種中譯本對比研究」에서 스키포스 이론(skopos theory)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춘향전> 번역본인 ⑤柳應九(2006)와 ⑥薛舟·徐麗紅(2010)의 번역 전략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⑤는 대중문학을 지향하여 독자대중의 가독성을 확대하고자 의역을 기본으로 삼았고, ⑥은 순수문학을 지향하여 문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중시하는 방향에서 원본 내용을 그대로 완역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⑤는 일상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주인공 혹은 스토리 중심으로 개작하였고 ⑥은 공식적인 언어로 원문의 문장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고대의 지명과 인명, 어려운 낱말에는 별도로 주석을 달았음을 지적하였다.²⁰⁾

아울러 丁生花가 번역한 『春香傳』(北京民族出版社, 2007)도 간단히 언급해 둔다. 이 책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를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출판된 것으로 조호상의 현대어역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 각 대학의 교재로 <춘향전>이 번역 소개된 사례가 더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를 다 조사할 형편이 없었다.

이들 번역본의 성취 정도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원작을 만족할 만큼 훌륭하게 재현해 낸 역본은 아직 없다...”라고 달리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각 번역본의 차이와 각각의 특장에 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2.2. 월극 <춘향전>과 재창작으로서의 <春香>

(가) 월극 <춘향전> 상연

<춘향전>이 중국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소개된 사례로는 월극 <춘향전>

19) 姚莉, 「朝鮮言情漢文小說研究 - 以<春香傳>爲中心」,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8.4, 3頁.

20) 鄭怡鵬, 「目的論視角下的<春香傳>兩種中譯本對比研究」, 天津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5.3, 1-51頁.

21) 왕비연, 「春香傳의 中國語 翻譯 및 變容의 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면.

상연 이전에 이미 崔承喜의 발레 공연과 林素香의 오페라 공연에 있었다.²²⁾ 하지만 華東戲曲研究院 越劇實驗劇團 第二團이 1954년 8월 1일, 上海 長江劇場에 상연한 월극 <춘향전>은 <춘향전>이 중국에 소개되고 수용된 가장 대표적이고 극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월극 <춘향전> 공연에는 한국 전쟁 시기 예술단 위문 공연을 통한 북한과 중국의 우의라는 정치외교적 계기가 작용하였다. 상해에서 활동하던 ‘玉蘭劇團’(대표 徐玉蘭과 王文娟)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1953년 3월 ‘軍委總政治部文藝工作團越劇團’이란 이름으로 북한에 위문단으로 파견되어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을 위해 <梁山伯與祝英台>, <西廂記>를 공연한다. 그렇게 공연하면서 8개월가량 북한에 머물던 이들은 북한 사람들로 부터 <춘향전> 얘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되면서 이에 흥미를 느낀다. 그러던 터에 개성의 창극단이 이들을 위해 공연한 연극(話劇) <춘향전>을 직접 보고 크게 감동한다. 이에 중국 월극단 관계자들은 <춘향전>을 월극으로 개편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국립고전예술극장의 예술가들로부터 음악, 무용, 무대 설치 등에서 도움을 받는 한편, 조선 인민들을 찾아가 이들의 생활 방식을 살피며 <춘향전>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하였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 莊志를 대표로 <춘향전>을 개편하고 결국 상해에서 첫 공연을 올린다.²³⁾

이 공연은 중국에서 그야말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월극 <춘향전>에 대한 중국 관객들의 반응과 예술계의 호응은 정말 뜨거웠다. 첫 공연 당시 관객의 반응에 대해 龔牧은 이렇게 쓰고 있다.

“관중들은 무대 위에서 울리는 부드럽고 ①아름다운 노래 소리와 동작이 다 양한 조선무용을 따라, 춘향이 눈빛 가득 수줍음을 머금고 이몽룡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 ②행복한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에 흠모와 찬탄을 보냈다... 춘향이 사랑을 지키려고 어두운 폭력에 굴하지 않으며 봉건통치자에게 반항하는, 또는 인민들이 ③봉건질서에 맞서 투쟁하는 모습에서 관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관중들은 춘향의 승리에 기뻐했으며 순수한 사랑이 어두운 폭력에 승

22) 龔牧, 『朝中人民友誼的花朵：越劇<春香傳>的演出』, 『中國戲劇』, 1955년 2期, 52頁.

23) 이에 대해서는 龔牧(1955)에 자세히 나온다. 한편 李仁景의 『越劇<春香傳>與唱劇<春香傳>的比較研究』(上海戲劇學院碩士學位論文, 2010)를 참조할 수 있다.

리할 때에는 즐거워했다... ④우리들은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전설과 희곡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祝英台, 白素貞, 崔鶯鶯, 玉堂春을 사랑하는 것처럼, 조선의 영웅이자 민족 투쟁의 정신적 화신인 춘향이를 노래하고 싶다.”²⁴⁾ (밑줄과 번호는 인용자 표시)

월극 <춘향전>은 모두 89회에 걸쳐 공연을 했는데, 공연마다 객석이 꽉 차서 연 인원 90,337명이 관람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화동지구의 희곡 참관연출대회에서 극본상(1등), 우수연출상, 연출가상, 음악연출상, 무대예술상, 연기상 등 각종 항목에서 상을 휩쓸었다. 그 뒤 월극 <춘향전>은 북경 공연에서도 호평을 받아서 나중에는 京劇、評劇、黃梅戲、潮劇 등의 중국 전통극으로 개작되었다.²⁵⁾

그렇다면 월극 <춘향전> 공연이 중국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위에서 인용한 공목의 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장르 사이의 친연성이다.

월극과 창극은 서로 유사성이 있어서 <춘향전>을 월극으로 개편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두 장르 모두 20세기에 시작되어 그 역사가 짧은 대신 京劇이나 昆劇에 비해 형식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둘 다 說唱 예술이라는 점에서 장소에 크게 구애되지 않으며 극적인 대화로 이루어졌으며, 음악 구조의 원리 면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²⁶⁾ 이런 까닭에 창극 <춘향전>을 월극으로 개편한다 하더라도 그 예술 표현이란 층위에서 원 텍스트가 가진 묘미와 감동을 크게 훼손하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①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무용의 춤사위는 중국인 관객을 사로잡았다.

둘째, 춘향과 이몽룡이라는 젊은 선남선녀들의 애뜻하고 순수한 사랑은, 문학과 예술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才

24) “觀衆隨著舞台上柔美的歌聲和多姿的朝鮮舞蹈，隨著春香對李夢龍脈脈含羞的愛戀，爲一對幸福的年輕人的純眞愛情向羨慕贊歎..... 春香對愛情的忠貞，對黑暗暴力的不屈，對封建統治者的反抗，以及人民對封建秩序的鬥爭，深深感動著觀衆..... 觀衆爲春香的勝利而歡悅，爲純眞愛情戰勝了黑暗暴力而愉快。我們不僅喜愛自己民族的優秀傳說和戲曲，我們也想喜愛祝英台，白素貞，崔鶯鶯，玉堂春一樣，歌頌著朝鮮英雄民族戰鬥精神的化身-春香。”(龔牧，上揭書，53頁)

25) 李仁景，上揭書，7頁.

26) 李仁景，上揭書，3-4頁.

子佳人 소설을 잘 아는 중국 관객들에게는 그 자체로 마음 설레게 하면서도 친숙한 서사이다. 그래서 관객들은 이들의 사랑에 기꺼이 ‘흙모와 찬탄’(밑줄 ②)을 보냈던 것이다.

셋째, 춘향이 이몽룡과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봉건질서와 반동적 인물에 맞서야 했던 바, 이러한 ‘반봉건투쟁’을 고취시키는 이야기야말로 사회주의 중국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봉건질서에 죽음으로써 맞선 춘향은 사회주의적 인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하겠다.

넷째, ‘북한과 중국의 우호[朝中友誼]’라는, 이미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외교적 필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공산혁명 과정에서 숭한 희생을 무릅쓰고 공헌한 것처럼,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며 조선을 구하는[抗美援朝]’ 6.25 전쟁에서 허다한 인민의 목숨을 바쳤다. 다시 말해, 북한과 중국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血盟]’ 관계였던 것이다. 더구나 월극 <춘향전>이 처음 공연된 날은 전쟁이 끝난 지 딱 1년이 되는 해로, 많은 희생이 있긴 했지만 6.25를 이긴 전쟁으로 기억하는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전승을 기념하며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쩌면 이 점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보다 당시 정국에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층위에서 작용했을 것 같다. 그렇기에 중국 관객들은 ④에서처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문화 예술에도 기꺼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월극 <춘향전>이 창극 <춘향전>과 비슷한 점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창극 <춘향전>이 주제의식이 복잡한 반면에 월극 <춘향전>은 그렇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앞엿것은 춘향이 사랑에 忠貞을 보이는 것 외에 두 사람의 신분 차이, 양반에 대한 풍자, 봉건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던 반면, 월극은 개편 과정에서 애정에만 집중하였다. 또한 월극 <춘향전>은 북한 창극을 근거로 개편했기에 ‘완정판 창극’이라 불리는 한국 창극(6시간 공연)에 비하면, 장면 배치가 기본적으로 같다고 해도 월극은 공연 시간이 3시간 정도로 줄어들었다.²⁷⁾

월극 <춘향전> 공연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를 통해 우리

27) 李仁景, 上揭書, 14-7頁.

말로 된 <춘향전> 텍스트를 중국어로 번역한 시도는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춘향전>이 중국 인민들 사이에 획기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이후 학술적 연구에 지속적인 지침이 될 만한 춘향의 인물 형상과 <춘향전>의 주제의식 등에 대한 기본적 견해가 마련되었다. 이 세 번째 의미는 “이 연출은 조선인민의 사상 감정과 투쟁 성격을 진실되게 반영하였다.”는 龔牧²⁸⁾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월극 <춘향전>은 역사와 문화가 서로 다른 두 나라 또는 민족 사이의 문화 교류가 일방적이지 않고 말 그대로 상호적(相互的)임을 잘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자,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해월극단은 1961년 9월, 朝鮮文化省의 요청으로 북한으로 가서 40일을 머물며 월극 <춘향전>을 공연한다. 함흥, 개성, 신의주, 평양, 원산 5개 도시에서 25번을 공연하였는데, 2만 여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한다.²⁹⁾ 龔牧은 <춘향전>이 ‘북한과 중국 인민들의 우의의 꽃(朝中人民友誼的花朵)’이 되었다고 했다. 한국의 <춘향전>의 영향을 받았지만, 월극 <춘향전>은 수동적인 수용에 머물지 않고 자기 나름의 변용을 거쳐 원 텍스트를 생산한 곳의 인민들에게 다시 예술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춘향전>이 중국의 전고를 인용하고 시를 수용하면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유교 전통을 담아내면서도 주체적인 문제의식과 변용을 거쳐 중국 인민들을 감동시켰던 것과 맥락이 같다.

(나) 金仁順의 <春香>

金仁順³⁰⁾의 <春香>은 『收穫』(2008년 3期)이란 잡지에서 발표되었다가 2009년 中國婦女出版社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고전을 다룬 작품을 즐겨 쓴다고 하는데, <盤瑟俚>와 <春香>을 예로 들 수 있다.³¹⁾ 김인순의 창작 소설 <춘향>은 한국의 <춘향전>을 염두에 둔 작

28) 龔牧, 前掲書, 52頁. “這個演出真實地反映了古代朝鮮人民的思想感情和鬥爭性格...”

29) 李仁景, 上掲書, 6-7頁.

30) 김인순은 조선족으로 吉林 白山市에서 1970에 태어났다. 한국어는 전혀 모른다고 한다. 길림예술학원 연극과를 졸업하고 문학 창작을 시작했다. 중국작가협회 회원이면서 문단에서는 '70년대 여성작가로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중단편을 주로 쓰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愛情冷氣流>와 <彼此>가 있다. (王慧, 『從<春香傳>到 <春香> - 論金仁順對傳統小說的個性化演繹』, 陝西: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2.5, 6頁.)

31) 洪永春·李永求, 『從<春香傳>到<春香>: 傳奇的消解與置換』, 『通化師範學院學報』 Vol.31

품이라 할 수 있다.³²⁾ <춘향>의 앞부분은 춘향의 출생담을, 뒷부분은 이몽룡을 둘러싼 사랑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 줄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³³⁾

藥師의 딸인 춘향의 어머니는 남원의 이름난 기생이다. 남원에 부임한 翰林按察副使는 그를 흠모하여 香榭라는 정자를 지어준다. 둘은 사랑을 나누고 춘향을 낳는다. 한림안찰부사는 서울로 되돌아가는 길에 독사에 물려 죽고 만다. 그 뒤 춘향의 어머니는 생계를 잇기 위해 향 부인으로 자처하고 향사를 이름난 妓院으로 만들어 운영한다. 그러는 한편 소금 밀매로 경제적 능력을 키운다. 그는 향사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든다. 남자라고는 춘향을 가르치는 鳳周先生, 향 부인이 데리고 지내는 아이 金洙 밖에는 없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김수를 좋아하던 춘향은 어느 날 그와 잠자리를 갖는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 일이 어머니께 들키면서 김수는 쫓겨난다. 시간이 흘러 춘향은, 춘향 자신이 아닌, 향 부인을 만나러 향사에 놀러온 이몽룡을 만난다. 둘은 서로 좋아하지만, 이몽룡을 향한 춘향의 마음은 김수에 대한 사랑만큼 절절하지는 않다. 이몽룡은 서울로 되돌아가면서 춘향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하지만 결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새로 부임한 변학도는 향 부인이 소금 밀매한 것을 트집 잡아 그를 위협하며 춘향을 자기에게 시집보내도록 협박한다. 다시 오겠다던 이몽룡은 춘향이 위기에 빠졌는데도 그를 구해주러 오기보다는 출세를 위해 과거시험을 보고서 임금의 부마가 된다. 끝내 딸 춘향을 구해낼 방법을 달리 찾을 수 없게 되자, 향 부인은 변학도와 '무색(無色)'이란 약을 나눠 마시고 둘 다 기억을 잃어버린다. 향 부인은 정신을 놓고 백치가 되고 말지만, 춘향은 이로써 변학도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뒤 춘향은 어머니 향 부인처럼 향사의 새 주인이 된다. 그런데 춘향은 어머니보다 약을 더 잘 써서, 미운 손님한테는 수족이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손님한테는 영원히 향사를 그리워하도록 만든다.

김인순의 <춘향>은 작품의 배경이 남원이며, 원작 <춘향전>의 주요 인

No.7, 2010.7, 33頁.

32) 책 표지에는 “한국판 <서상기>, 옛 조선의 <로미오와 줄리엣>(被譽爲韓國版的<西廂記>, 古朝鮮的<羅密歐與朱麗葉>)”이라는 소개글이 있다.

33) <춘향>(2009)의 대체적인 내용은 洪永春·李永求(위의 글)과 王慧(上掲書, 7頁), 학청산(앞의 글, 48-56면)을 참조한다. 아울러 작가와 연구자들 사이의 다음 인터뷰도 참조한다. 金仁順 等8人, 『關於長篇小說<春香>的對話』, 『作家』, 長春: 吉林省作家協會, 2010年24期, 6頁.

물들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원작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 인물들의 성격은 원작과 전혀 다르다. 이야기 전개 역시 아주 다르다. 예컨대 춘향의 어머니는 별다른 능력이 없는 퇴기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수완을 지닌 妖婦의 이미지를 지닌다. 이몽룡이 향사를 찾은 것도 춘향이 아닌, 향 부인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몽룡은 원작과 달리 춘향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과거 시험 보느라 춘향을 찾아 돌아가지도 않고 공주와 결혼하고 만다. 춘향 역시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내왔던, 첫날밤을 함께 보냈던 김수이지 이몽룡이 아니다. 또 하나, 결단코 기생이기를 거부했던 원작의 춘향과 달리 김인순의 춘향은 어머니의 삶을 따라 기꺼이 기생이 된다. 기생이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약초를 활용해 남자들의 마음을 조종한다. 어머니보다 더 치명적인 ‘팜므 파탈(Femme Fatale)’이 된다. 한편 절대적 악인이었던 원작의 변학도와 달리, <춘향> 속의 그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본래는 청렴한 관리였지만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결국 타락하고야 만다.

이렇게 보면, 김인순의 <춘향>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주요 인물의 이름이 같다 뿐이지, 원작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춘향전>이라는 원작이 있어야, <춘향>의 의미와 가치가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생각하면, <춘향>을 <춘향전>의 패러디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말하자면 <춘향전>에 나타난 전통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변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물론 김인순의 <춘향>을 읽은 중국 독자들이 원전 <춘향전>에 관심을 돌렸을까 하는 점은 확신하기 어렵다.

3. <춘향전> 연구의 현황 : 성과와 한계

이제 <춘향전> 연구의 대략적 현황을 살펴보며 그 성과와 한계를 따져

34) 예컨대 김인순의 <춘향>에서 두 여성 인물인 향 부인과 춘향은 여성에게 들쭉쉬진 전통적인 수동적인 여성상을 거부하고 기생의 신분을 마다하지 않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정절을 중시하고 봉건 질서에 결국 순응하고 마는 <춘향전>의 춘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춘향전>을 다룬 중국 쪽 논문으로는 박사 논문 1편, 석사 논문 14편, 그 외 학술지 소논문이 46편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국의 <춘향전> 관련 연구 자료들은 출판된 시기별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1950~60년대에 나온 자료들은 월극 <춘향전>과 관련되어 극예술계에 제출된 에세이 성격을 지닌 글들이다. 龔牧(1955), 王文娟(1955), 王文娟(1960), 莊志(1962)이 그렇다. 이런 점에서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가 나온 때는 1970년대 후반이며, 그 시작은 대만 연구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³⁵⁾ 이렇게 보면, 적어도 중국 대륙에서의 <춘향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0년 이상의 틈이 생기는데, 아마도 이것은, 중국이 내전(內戰) 상황에 빠지면서 대학이 문을 닫은 문화대혁명(1966~1976) 10년의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1970~80년대의 연구는 몇 편 되지도 않을뿐더러 모두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소논문으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학술지 소논문으로 제출된 것이라 해도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2000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90년대에 延邊大學에서 석사학위논문이 2편 제출된 뒤로 2000년 이후로는 석사논문이 대거 나오며 박사논문도 나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의 <춘향전>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쪽의 <춘향전> 연구가 지닌 내용적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본다. 우선, 학술지 소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그런데 중국의 학술지 소논문은 대개 2~4쪽 정도로 발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이 소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구 텍스트를 세밀하게 따져 자세히 서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학술 논문은 연변대학에서 많이 나왔다. 조선족 연구자가 많고 그래서 한국어 논문도 몇 편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중국어 논문이 더 많다.

35) 鞠翀, 『韓國<春香傳>與中國文學主題的幾種比較研究』, 『從木柵到西雅圖』, 台北: 幼獅出版社, 1976; 黃微光, 『<鶯鶯傳>與<春香傳>之比較研究』, 台北: 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學研究所, 1978; 鄭判龍, 『朝鮮優秀的古典名著<春香傳>』, 『延邊大學學報』, 1979年 3期.

셋째, <춘향전>의 중국어 번역본이 그런 것처럼 학술적 연구도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예가 많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핀 대로 이 판본이 선본으로 평가받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국 쪽의 <춘향전> 연구는 주로 춘향의 인물 형상, 언어 표현, 주제의식, <춘향전>에 나타난 민족의식, 중국 문학 또는 문화와의 비교 등의 방면에 관심을 갖고 이루어졌다.

이제 연구 주제별로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학술지 소논문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량이 제한되는 매체 특성에 비추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위 논문을 위주로 연구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연구의 경향성, 또는 관심사의 향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의 <춘향전> 수용과 연구에서 춘향의 인물 형상은 앞서 살핀 대로 1954년의 월극 <춘향전>에서 이미 그 인식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이몽룡과의 사랑에서는 수줍음을 머금을 만큼 순수하면서도 사랑을 지키기 위해 폭력에 굴하지 않으며 봉건통치자에게 반항하는’³⁶⁾ 모습이 그것이다. 이는 韋旭昇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정리되어 있다. “춘향은 사상이 순결하고 감정에 진지하며 애정에 충실하다. 악한 세력에겐 용감하게 항거하는 여성 이미지를 지닌 인물이다.”³⁷⁾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 교재에 소개된 <춘향전>의 춘향의 이미지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대체로 피지배계급의 일원으로서 봉건사회 양반관료들의 포학성을 폭로하며 이에 맞선 인물로 그려진다.³⁸⁾ 張艷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춘향이 하층 노동인민들의 기대심리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보았다. 지배계층

36) 龔牧, 上揭書, 53頁

37) 韋旭昇, 前揭書, 327頁. “春香是一個思想純潔, 感情真摯, 忠於愛情, 勇於反抗惡勢力的婦女形象。”

38) 李先漢·蔡美花의 『朝鮮古典文學作品選』(延邊大學出版社, 1982), 韋旭昇의 『朝鮮文學史』(北京大學出版社, 1986), 許文燮의 『朝鮮古典文學史』(遼寧民族出版社, 1984), 朴忠祿의 『朝鮮文學通史』(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1986), 文日煥의 『朝鮮古典文學史』(北京民族出版社, 1994) 등이 있다. 북한에서 출판된 『朝鮮文學通史』(上, 下)(조선사회과학원, 1986) 바탕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崔雄權·金一, 『韓國小說在中國的傳播與研究』, 『東疆學刊』, 16卷 4期, 1999, 43-44면.)

에 저항함으로써 계급모순을 드러내며 신분상승을 행복한 결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³⁹⁾

다음으로 <춘향전>의 언어표현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본다. 王鵬·李晶은 춘향의 격렬한 언사가 춘향의 성격, 곧 지배계층의 고관과 세력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성품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로써 춘향의 언어와 성격적 특징을 연결 지었다.⁴⁰⁾ 王成은 춘향의 말이 직설적이고 강렬한 점을 들어 그 성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⁴¹⁾

<춘향전>의 주제의식 또는 그에 담긴 사상에 관한 연구로는 徐英淑(2000)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치학과의 논문으로 <춘향전>의 윤리사상을 살폈다. 이 글은 윤리사상의 핵심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정절과 순결, 자주적인 애정 찬미(熱情讚美了堅貞、純潔、自主的愛情). 여기에서 ‘자주적인 애정’이란 춘향과 몽룡이 부모의 허락 없이 그들 먼저 사랑하고 혼약을 맺었음을 가리킨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주적인 애정’이 애정을 개인과 개인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이해하는 맑스주의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⁴²⁾ 둘째, 이상적인 인격의 전범 형상화(塑造了理想人格典範). ‘이상적인 인격의 전범’이란, 결국 당시의 “노동인민들이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과 태평한 새 생활”에 부합하는 인간형이란 것인데, 당시의 윤리관념에서는 이상적인 여인상은 ‘삼강오륜’에 부합하는 인간이다.⁴³⁾ 셋째,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사상 주장(主張揚善抑惡、因果報應思想), 넷째, 노동인민이 신의를 중시한다는 사상을 체현(體現了勞動人民重信義的思想),

39) 張艷, 「<春香傳>愛情主體探究」, 『開封大學學報』 Vol.27 No.2, 開封: 開封大學學報編輯部, 2013.6, 25-28頁.

40) 王鵬·李晶, 「論<春香傳>的語言特色」, 『棗莊學院學報』 Vol.28 No.3, 2011.6, 46頁. “激烈的言辭展現出春香剛烈的性格, 彰顯她不高官權貴低頭的品性..., 女主人公的語言更加生動到地位體現了她的性格特征”

41) 王成, 「淺談古典小說<春香傳>的問體特色」, 『文藝天地』, 2012.2.

42) 徐英淑, 「論<春香傳>中的倫理思想」,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0.6, 11頁. “馬克思主義倫理學認為, 愛情作為人與人之間, 特別是兩性之間的一種特殊關係, 是主觀情感和客觀義務的有機統一, 但它首先必須是自由性的. 由於在愛情關係中的主角是男女兩性雙方, 其關係的成立必須完全出自於當事人的自願, 絕不能是出自其他外來因素和勢力的幹預.”

43) 上揭書, 13頁. “<春香傳>基於當時李朝封建國家社會文化土壤, 根據廣大勞動人民追求人人平等而太平的新生活的強烈願望, 朴素地把成春香和李夢龍塑造成了人民心目中的庶民和兩班的理想人格典範... 可以算稱‘女中君子’的李朝女性的理想人格典範. 當時, 成爲評價婦女理想人格典範的標準的是三綱五常.”

다섯째, 민족의 풍속습관 존중과 민족성 드러내기(尊重民族風俗習慣, 突出了民族性). 이는 이몽룡과 춘향이 만난 날이 단오절이며 작품 속에서 단오절의 그네뛰기 풍습이나 농악을 즐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결국 다음과 말로 <춘향전>의 주제의식과 사상을 정리할 수 있다. “<춘향전>은 당시 날로 쇠락해 가는 봉건양반 귀족통치 계급의 잔혹함과 부패무능함, 어리석음 등의 반동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더욱 강렬하게는 인민대중의 자유평등의 순수한 애정을 추구하며 독립적이고 완미한 인격을 갈망하며 권선징악과 친화단결 등, 풍부한 윤리사상을 반영한다.”⁴⁴⁾ 이런 견해는 결국 정치학과 논문답게 <춘향전>을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구현한 작품으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朴文華는 <춘향전>의 이중적인 심미구조를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로 나누고 앞엿것을 조선민족의 문화의식, 뒷엿것은 ‘중국 전통사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춘향전>의 심층구조를 <단군신화>에서 찾는 것이나 <춘향전>의 ‘현실(현세)의식’, ‘덕치의식’, ‘신분상승의식’이라는 기본 아이디어와 논리 구조가 이춘화(1999)와 매우 흡사해서 연구 윤리에 저촉될 여지가 많은 것 같다.⁴⁵⁾ 許建昆·崔圭萬(2015)은 대만 학자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기존 중국 학계의 연구에 대해 나름 비판적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는데, <춘향전>의 핵심 모티프로 ‘청춘과 애정’을 앞세우고 이를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⁴⁶⁾

다음으로 <춘향전>에 드러난 민족적 특색을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다. 張朝柯는 <춘향전>의 유래와 연변, 판본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그

44) 上揭書, 2頁. “... 反映當時日益沒落的封建兩班貴族統治階級的凶殘、腐敗無能、愚蠢等反動本性的同時, 更強烈地反映了人民大眾追求自由平等的純真愛情, 渴望獨立而完美的人格, 揚善抑惡及親和團結等豐富的倫理思想.”

45) 朴文華, 『<春香傳>의 二重審美結構與中國思想、文學之關聯研究』, 吉林: 延邊大學碩 士學位論文, 2011.5.

46) 許建昆·崔圭萬, 『試論韓國<春香傳>故事中青春與愛情的交響』, 『蘇州教育學院學報』 Vol.32 No.5, 蘇州: 蘇州教育學院, 2015年10月, 31頁. “학계는 권위에 반항하는 것, 주인공의 신분, 혼인 형식과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면서도 도리어 ‘애정지상’이라는 모티프를 흠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 글은 각종 판본의 문체 유형과 주제 표현을 논술하고 청춘과 애정을 노래하는 것이 <춘향전>의 핵심 모티프임을 증명한다(學界似乎強調反抗威權, 主角身份, 婚姻形式與女性貞節, 反而忽略了愛情至上的母題. 文章論述各種版本的文體類型與主題表現, 證明歌詠青春與愛情才是<春香傳>的核心母題).”

속에서 민족 언어와 제재, 민족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우선 <춘향전>이 빈틈없는 언어 표현으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⁴⁷⁾ <춘향전>의 주요 표현 수법으로 대화와 창사, 가요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갈등을 드러내는 점을 들고, 이를 조선 가극 또는 설창문학의 예술적 표현 방법이라고 보았다. 장면 묘사에서 연극의 기법이 자주 활용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소설 방식과는 아주 다르며, 특히 조선어 사용이 민족적 특색 가운데 하나인데, 이로써 조선민족 특유의 감정 전달 방식과 그들이 즐겨듣고 보는 언어형식을 써서 자신들의 생활, 투쟁, 사상 감정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사랑가>와 <이별가>를 예로 들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방적 중국 영향론’에 매몰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에 있다. 오히려 그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춘향이 중국의 전고와 한시를 인용하면서도 자신의 처지와 감정 표현에 맞게 적절하게 변용하는 점을 거론하며 중국적 요소가 <춘향전>에 끼어들었음을 알면서도 <춘향전>의 민족적 특색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⁴⁸⁾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은 오히려 후대 연구자들에게 가면 약해진다.

李春花는 <춘향전>에 나타난 심층문화의식으로 현실(현세)의식, 덕치주의의식, 향상의식 세 가지를 들고, 그 연원을 <단군신화>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환인과 환웅이 속한 천상세계로부터 곰과 호랑이가 속한 지상세계로 내려온 환웅이 사람으로 변한 곰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고 이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다스린 것을 현실 긍정의 경향이라고 보았다.⁴⁹⁾ 그가 보기에 춘향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렬하게 투쟁하는 인간으로, 이는 생명의지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⁵⁰⁾ 곰이 인간이

47) 張朝柯, 「<春香傳>의民族藝術特色」(『外國文學研究』, 武漢: 華中師範大學 華中師範大學文學院, 1983年 3期, 84頁. “<春香傳>常常避免空洞的敘述和冗長的描繪, 運用間接表現的手法塑造人物的性格特征和精神面貌, 使人物性格簡潔明快地展現在讀者面前.”

48) 上揭書, 86頁. “當然, 在<春香傳>中還有不少中國的歷史典故、傳說、成語和詩句, 但是, 這些因素已經成爲與<春香傳>血肉相聯的有機部分了, 因而, 這些因素並不能影響朝鮮的民族特色.”

49) 李春花, 「<春香傳>, 鮮民族深層文化意識的再現」, 『延邊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Vol.32 No.3, 延吉: 延邊大學, 1999.8, 47頁. “第三類是檀君, 他是桓雄和熊女的兒子, 既不屬於天界也不屬於地上的動物, 而是現實社會生活中的人, 他把阿斯達建設成爲人們安居樂業的國家, 這不能不說是顯示了朝鮮先民對現實的肯定的傾向.”

50) 上揭書, 48頁. “春香這一形象的魅力在於: 弘揚了朝鮮民族的現世意識, 不斷地追求表現自身

되기 위해 굴 안에서 썩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을 견디는 것을 일종의 도를 닦으며 수행하는 것, 즉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며 내면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덕치주의의식이라 했다. 이는 외재적인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인격과 관련된다.⁵¹⁾ 그는 <춘향전>은 이러한 덕치주의의 원형을 나타내는데, 춘향의 아름다움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정려(貞烈)의 도덕미이다. 마지막으로 향상의식은 꿈이 일체의 시험을 이겨내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곧 인류의 향상(向上)을 바라는 성취욕에서 찾았다. 춘향의 투쟁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춘화의 견해는 참신하다고 볼 만한 점이 없지 않은데 문제는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비약이 심하다는 점에 있다.

王慧는 ‘인류학적 관심’, 또는 ‘한국학’으로서의 문학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그가 북경중앙민족대학의 ‘民族學與社會學學院’의 ‘민족학’ 전공자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국의 사회적 풍습에 1차적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춘향전> 각 인물들의 신분과 官妓 제도를 길게 살폈다. 아울러 조선후기의 신분의 변동도 살폈다. 또한 <춘향전>에 나타난 출산과 양육 풍습(祈子, 태몽, 산후 풍습)을 고찰하였고 혼인 제도, 단오절 등을 또 길게 다루었다. 문제는 이런 까닭에 작품에 관한 문학적 논의가 매우 소략해졌다는 데 한계가 있다.⁵²⁾

중국의 <춘향전> 연구에서 <춘향전>을 중국의 문학, 또는 문화와 비교한 연구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중국 고전문학 일반이나 중국 문화와 비교한 예이다.

管三元은 <춘향전>이 중국 고전 시가를 직접 인용한 것이 20여 수이고, 전고 인용은 20여 회,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80여 회이고 하는 식으로 계량한다. 전체 8쪽 분량 논문에서 3쪽 반에 걸쳐 <춘향전>에 인용된 중국 시와 산문 구절, 인물 이름 등을 열거한다. 이 연구는 <춘향전>에 조선 민족의 특색이 잘 나타난다고 말하지만, 가만 보면, <춘향전>이 중국

的生命意志, 實現自身的生命意志, 並爲此而進行不懈的奮鬥。”

51) 上揭書, 48-9頁, “母熊想變成人的欲望多麼熱切啊, 它的遂願是題中應有之義, 很明顯, 無論是立志成爲真正的人, 還是治理國家, 全都無法僅僅依靠外在的力量, 而得依靠忍受苦難和戰勝苦難的人格, 也就是說, 要依靠德治主義文化價值意識。”

52) 王慧, 「<春香傳>의 文化人類學解讀」, 北京: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07.3.

문학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연구자의 본심 같다는 생각이 든다.⁵³⁾ 이러한 관점은 중국 시가 인용이 <춘향전>이 지닌 민족 특색에 별 영향을 주지 못 했다고 본 張朝柯(1983)와는 견해와는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姚莉는 <춘향전>을 중심으로 조선의 한문에정소설을 연구하면서 이를 중국 명청시기 才子佳人형 소설의 영향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춘향전>이 ‘實事求是’를 추구하는 실학사상의 영향 아래 창작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명청실학과 중국을 통해 유입된 서학(西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⁵⁴⁾ 실학자였던 李瀾과 洪大容이 모두 양반신분제도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춘향전>에는 봉건적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崔美玲은 <춘향전>에 인용된 중국의 전고, 한시, 儒佛道 사상을 중국 문화에서 받아들인 요소로 보았다.⁵⁵⁾ 전고와 한시 인용은 이미 管三元(1990: 90)과 王慧(2008: 89)에서 언급한 것으로 새삼스럽지는 않다. 예컨대 <춘향전>에서 貞烈思想, 三綱五倫, 男尊女卑의 유교사상을 찾는 식이다.

李建東은 “참된 사랑에 대한 동경, 모욕당하고 해를 입는 사람에 대한 동정, 남의 행복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증오 등, 어떤 방면에서든,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의 뜻과 생각을 마찬가지로 찾아낼 수 있다.”⁵⁶⁾라고 하여 역시 <춘향전> 속에서 중국의 생각을 찾고자 하였다.

<춘향전>과 중국의 문학작품을 구체적으로 들어 비교한 연구는 주로 <西廂記>, <杜十娘>, <玉堂春傳>, 金仁順의 <春香>, TV 드라마 <쾌걸

53) 管三元, 「<春香傳>與中國古典文學」,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保定: 河北大學, 1990年04期, 90頁. “<春香傳>所呈現出的較濃厚的民族特色, 只是說, 它深深地受到了中國古典文學的影響.”

54) 姚莉, 『朝鮮言情漢小說研究 - 以<春香傳>爲中心』,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4, 12頁. “朝鮮實學思潮的產生除了上述的社會基礎外, 還有一定的文化曆史背景. 『除了正統性理學外, 還有從中國傳入的明清實學與從歐洲傳入的『西學』, 三者並存爲韓國實學體系的建構提供了豐富的思想文化資源...』” 이 주장은 葛榮晉 主編, 『韓國實學思想史』(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02, 2頁.)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55) 崔美玲, 「<春香傳>의中國文化因子」,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5.

56) 李建東, 「<春香傳>敘事與人物語言的中國情結」(『鹽城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Vol.26 No.1, 鹽城: 鹽城工學院, 2013.3, 53頁). “不論在對眞愛的憧憬, 對被侮辱、被損害者的同情, 對任何破壞他人幸福之惡勢力的憎恨等方面, 均能找到同屬漢文化圈的中國意向與中國情結.”

춘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 이 가운데 <춘향전>과 <서상기>를 비교한 연구가 가장 많은 편이다.

高銀河은 별다른 근거 없이 “<서상기>는 한국의 재자가인형 예술작품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춘향전>도 포함된다”라고 하였다.⁵⁷⁾ 王素君은 신분 지위와 성격, 여성의식의 각성, 애정에 대한 추구, 이 세 가지에 주목하여 ‘앵앵’과 ‘춘향’의 인물 형상을 비교하였다.⁵⁸⁾ 付春曉 역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춘향전>이 창작 과정에서 <서상기>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하였다.⁵⁹⁾

郭春林은 <춘향전>이 <서상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핵심 논거로 <춘향전>이 재자가인형 소설이며 <서상기>와 마찬가지로 설창문학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구체적인 논거로 뒷받침하지는 않았다. ‘재자가인형 소설’과 ‘설창문학’이란 점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중국 문학의 일방적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소설이 조선에 많이 전해져서 귀족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즐겼고, 그와 비슷한 작품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며 거론한 ‘역사적 배경’은 논거로서는 모호하고 막연하기 짝이 없다.⁶⁰⁾

金春蓮은 여성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비교하였다. 앵앵과 춘향이 부모의 허락 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가는 데에서 ‘주체의식’을, 사랑을 결혼의 기초로 본다는 점에서 ‘봉건예교에 대한 저항’을, ‘성욕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표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⁶¹⁾

韓霞·付嬌은 <춘향전>을 <杜十娘>과 비교하고 있다. <杜十娘>은 명말 풍몽룡의 『경제통언』 32권에 나오는 소설인데, 이들 작품이 ‘애정소설’

57) 高銀河 「〈西廂記〉與〈春香傳〉傳演中韓的愛情經典」, 『戲劇之家』 52(2), 2003, 28頁. “〈西廂記〉對韓國才子佳人類的藝術作品影響深遠, 這自然包含了〈春香傳〉”

58) 王素君, 『春香與鶯鶯的形象比較』, 南京廣播電視大學學報, 2006年 1期.

59) 付春曉, 『中韓兩國文學的完美結晶 - 〈春香傳〉』, 『安徽文學』, 合肥: 安徽省文聯, 2011年6期.

60) 郭春林, 『〈春香傳〉對〈西廂記〉的接受』,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6, 20頁. “中國小說類作品源源不斷的傳入朝鮮朝, 受到了朝鮮朝從貴族到平民的接受和欣賞, 相類似的作品也不斷出現. 基於這樣的一個歷史大背景下《春香傳》的產生從才子佳人寫作模式上就對《西廂記》有著一定程度的接受.”

61) 金春蓮, 『〈春香傳〉和〈西廂記〉之主體意識比較』, 『邊疆經濟與文化』, 哈爾濱: 黑龍江省邊疆經濟學會, 2014年01期.

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교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통점으로 이상적인 여성(理想的女性), 여주인공의 애정 추구(女主人公對愛情的追求), 그리고 여주인공의 봉건체제에 대한 저항(女主人公的封建叛逆性)을 들었다. 두 십량 경우, 기녀이면서도 從良을 삶의 목표로 하지 않고 평등한 인격과 상호 존중이라는 기초 위에서 사랑을 세우고자 하였다는 것이다.⁶²⁾

<춘향전>을 <玉堂春>과 비교한 연구로는 溫娉婷의 「淺析<春香傳>和<玉堂春>的女性形象」(『法制與社會(教育文化版)』, 長春理工大學人文學院, 2009年 8月)와 莊宋靑의 「從理慾關係看<春香傳>和<玉堂春>」(『群文天地』, 2010.)이 있다.

<춘향전>의 재창작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작가 金仁順의 <春香>과 한국의 TV 드라마 <쾌걸춘향>을 <춘향전>과 비교한 연구가 있다. 王慧는 김인순의 소설 <춘향>이 <춘향전>으로부터 전승한 것과 혁신한 것을 살폈다. 앞것으로는 민족문화 전승을 들었는데 원전이 지닌 설창문화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질서를 들었다. 한편 혁신한 것으로는 서사가 전혀 달라지고 인물의 성격을 달라진 점을 들었다. 당연히 주제도 달라졌다.⁶³⁾ 하지만 <춘향>이 <춘향전>과 다른 이유로 '시대가 변했다'거나 '작자의 독특한 창작 추구'를 든 것은 어쩌면 하나하나한 당연한 소리나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작품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작품이며 작자나 창작의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房威는 TV 드라마인 <쾌걸춘향>(2005.1.3.~3.1까지 KBS2 TV에서 방영, 월화 밤 9시 55분, 미니시리즈 드라마)⁶⁴⁾과 <춘향전>(완판 84장본)을 비교하여 그 관련성을 살핀다고 하면서도⁶⁵⁾ 이와 큰 관련이 없는, '드라마 콘텐츠의 고전소설 수용'과 같은 얘기를 길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의 성격과 서사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고찰한다고 했지만, 그 同異가 지

62) 韓霞·付嬌, 「<春香傳>和<杜十娘>的比較」, 『安徽文學』, 合肥: 安徽省文聯, 2006年 08期, 18頁. “她作爲名妓, 並沒有象傳統文學作品中的妓女那樣以“從良”爲目標, 因爲她追求的是建立在人格平等和相互尊重基礎上的愛情.”

63) 王慧, 「從<春香傳>到<春香> - 論金仁順對傳統小說的個性化演繹」,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5.

64) 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qgirl/media/making/index.html (2016.8.18.)

65) 房威, 「電視劇<豪傑春香>和古典小說<春香傳>的關聯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5.

닌 의미를 깊게 파고들지는 않고 피상적인 나열적 이해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이 드라마가 지닌 현대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춘향전> 연구는 사실상 197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연변대학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학위논문을 생산해내면서 <춘향전> 연구자의 저변이 중국 전역으로 다른 대학으로도 넓어지고 있다. 1990년 이후로는 연구 편수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제적 관심의 폭도 훨씬 더 넓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에서의 <춘향전>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춘향전> 연구가 이제 웬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불만한 성과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춘향전> 연구에 자국이 될 만한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다.

이제 중국 쪽 연구의 한계와 그 원인을 몇 가지 짚어보고 거칠게나마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춘향전> 연구가 지닌 한계는 무엇보다 비교문학의 방법을 채택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들 비교 연구는 ‘중국의 일방적 영향, 한국의 일방적 수용’이라는 시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 여전히 비교문학 연구의 초기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⁶⁶⁾ <춘향전>에 나타난 한시나 중국 전고, 중국 문화를 거론하고 이를 영향으로만 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라는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각에 머물면 <춘향전> 작자의 문제의식을 놓치게 된다. 왜 <춘향전>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그 생명을 이어왔는지, 무엇보다 현재에도 계속 새롭게 해석되고 창작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들어설 여지를 없애게 된다. 아울러 왜 중국이 <춘향전>을 수용했는가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주체성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당연히 <춘향전>에 나타난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살피야 하지만, 그와 함께 개별적·민족적 특수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 그럴 때에만, <춘향전>이 일국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대중적 사랑을

66) 대표적으로 다음 몇 가지만 예로 든다. 朴金鳳, 「<春香傳> : 中國與朝鮮文化交流的結晶」, 『安徽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vol.29, 馬鞍山: 安徽安徽工業大學, 2012년3월, 58-59頁; 楊乃晨, 「<春香傳>是一支轉播與發展中國文化的嬌豔之花」, 『東疆學刊(哲學社會科學版)』, 1991年 第1期; 石曉玲, 「略論韓國李朝小說對中國明代小說的受容」,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받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王實甫가 쓴 <서상기>와 <춘향전>의 경우를 보아도 단순한 영향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서상기>는 지식인인 장생과 명문가문의 딸 ‘앵앵’의 사랑을 다룬다. 과거 급제한 장생과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앵앵의 백년가약은 해피엔딩을 맺는다.⁶⁷⁾ 그런데 이 점에서는 <서상기>가 <춘향전>과 비슷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기생인 춘향과 명문가 남자인 앵앵의 신분 차이가 이들 애정서사에서 결코 작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을 생각해야 한다. <서상기>에는 남녀 인물 사이의 신분 갈등이 크게 없고, 변학도라는 사랑의 방해자이자 탐관도 없다. 그러나 작품 속에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두드러질 리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봉건질서에 대한 부정과 비판, 대립이 나오지 않는다. <서상기>의 紅娘은 희극적 인물인 방자와 같지 않다. 이몽룡이 『대학』, 『맹자』, 『사략』 등을 읽다가 춘향을 생각하며 헛갈리는 장면들은 독자들의 실소를 터뜨릴 뿐만 아니라, 전통적 지식 체계에 대한 반감과 양반계층에 대한 풍자를 은연 중에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춘향전>의 작품세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전을 희롱하기를 일삼아 하는 이몽룡을 전통적 의미의 ‘才子’라고 하기도 어렵다.

웰렉(Rene Wellek)은 자국문학사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교문학 연구를 하는 것을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라 규정하고 여기에서 ‘비교문학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보았다.⁶⁸⁾ <춘향전> 연구자들의 비교 연구가 초기에 보여준 진지한 태도는 뒤로 갈수록 약해지고, 웰렉이 지적한 것처럼 반성 없는 ‘영향론’이 오히려 되풀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다음으로 어쩌면 지엽적일 수 있는 문제점 몇 가지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소논문 대부분은 많아야 서너 쪽 분량이다. 이런 까닭에 제대로 된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고 치밀하게 논리 전개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⁶⁹⁾ 둘째, 셋째, 출처 표시

67) 김정규, 『중국희곡총론』, 명지대학교출판부, 2000, 209-243면.

68) R.Wellek, "The Crisis of Comparative Literature", *Concepts of Criticism*,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3, p.290.

69) 예를 들면, 1쪽짜리인 다음 논문. 李美丹, 成意, 『淺析<春香傳>中春香的封建叛逆性』, 『現代

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표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논문을 직접 인용한 예로 王成(2012)⁷⁰을 들 수 있다. 넷째, 서지사항도 정확하지 않다. 서지 사항이 자세하게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 더구나 한 연구자의 서로 다른 논문에서도 표기가 서로 다른 때가 더러 있을 정도이다. 다섯 째,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연도나 제목, 원본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런 까닭에 연구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 여섯 째, 논문 서술에서 엄밀함이 나 치밀함, 논리적 분석이 대체로 부족하다. 범박한 일반화가 대세이다. <춘향전>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줄거리 소개에 그치는 예가 많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중국에서의 <춘향전>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연구 내용을 볼 때, 중국 쪽 연구 내용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 쪽 연구에서 언급된 것이어서 새로운 점을 찾기가 어렵다.⁷¹

사실 중국인 연구자들이 외국의 문학작품을 연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 이해의 제약과 함께 자료 접근의 문제, 사회문화적 풍토 차이, 특히 연구 방법과 차이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외국인인 그들로서 <춘향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감상하며 비평한다는 것이 결코 수월한 작업이 아님은 분명하다. 한편으로 한국 문학, 특히 고전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이 별로 없다는 형편⁷²도

語文』, 2015.3, 59頁. 논문 제목에서 ‘평이하게 분석한다[淺析]라고 밝힌 것처럼, 본격적인 학술 논의라고 하기엔 내용이 미흡하다. <춘향전>이 “봉건적인 신분등급제도, 봉건적인 연애와 혼인관, 폭력적인 권력에 대한 반항을 보여준다(對封建身份等級制度的反叛... 對封建婚戀觀的反叛... 對封建強權的反叛).”는 주장은 앞선 논의에서 이미 여러 번 되풀이 되었다. 張靜의 『簡評朝鮮古典小說<春香傳>』(『統計與管理』, 石家莊: 河北省統計科學研究所, 2013.1, 180-181頁.) 역시 2쪽짜리인데, ‘간단하게 평한다[簡評]라는 제목처럼 본격적인 논문이라고 하긴 어렵다. 분량도 2쪽 밖에 안 된다. 더욱이 통계과학연구소(統計科學研究所)에서 펴낸 『통계와 관리(統計與管理)』라는 학술지에 실은 것이니 문학 관련 학술지와는 거리가 멀다.

70) 王成(2012: 125)의 “춘향의 격렬한 언사가 춘향의 성격, 지배계층의 고관과 세력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성품을 드러낸다, 곧 여주인공의 언어가 생동감 있게 성격적 특징을 나타내어 준다(激烈的言辭展現出春香剛烈的性格, 彰顯她不高官權貴低頭的品性..., 女主人公的語言更加生動到地位地體現了她的性格特征).” 부분은 王鵬·李晶의 『論<春香傳>的語言特色』(『棗莊學院學報』 Vol.28 No.3, 2011.6, 46-48頁.)에 똑같이 나온다.

71) 예컨대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정래동, 『춘향전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작품들』, 『대동문화연구』 제1집, 1963; 김기평, 『서상기와 춘향전』, 『공주교육대학 논문집』 제1집, 1964; 이가원, 『<춘향가>가 명곡에서의 받은 영향』, 『국어국문학』 제34·35합집, 1967.

고려해야 한다. 한국 문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연구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글의 비판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정이 어찌 되었든, 중국의 <춘향전> 연구가 적어도 30년이 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제는 지나온 길들을 되짚어 보며 일정하게 성찰하며 새로운 연구 목표와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특히 한중 비교문학에서 여전히 중국의 일방적 영향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학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두 나라의 문화교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학문 풍토도 얼마만큼은 그들 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비단 <춘향전>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한국 문학 연구나 한중 학문 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서로에게 도움 되는 쪽으로 이어지려면 역시 엄정한 학문적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지속되는 것 외에는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4. 결론

이 글은 ‘중국인 연구자가 중국어/한국어로 중국 학계에 제출한 연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 고전인 <춘향전>을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예술적으로 수용한 사례들과 더 나아가 학문적으로 연구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춘향전>은 만주국의 중국 문인 外文이 장혁주의 일본어 희곡 <춘향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長春의 문예지 『藝文志』 창간호(1939)에 실음으로써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춘향전>이 중국의 수많은 인민 대중을 받으며 한국의 고전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은 1954년 8월 1일, 중국의 越劇實驗劇團이 월극 <춘향전>을 중국 상해에서 공연한 이후부터이다. 이는 <춘향전>이 중국에 소개된 가장 극적이고 성공적인 사례

72) 중국 대학 가운데 한국 문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으로는 연변대학과 북경의 중앙민족대학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라 할 수 있다. 이후 <춘향전> 연구에서 춘향의 인물 형상과 주제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이때에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중동포인 김인순의 창작 소설인 <춘향>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학술 연구로서 다룬 중국 쪽 논문으로는 박사 논문 1편, 석사 논문 14편, 그 외 학술지 소논문이 46편 정도가 있다. 이들 연구는 시기별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950-60년대 나온 글들이 월극 <춘향전>과 관련되어 극예술계에 제출된 것이라면, 학술 연구는 1970년 대 후반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학위논문과 같은 본격적인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쪽의 <춘향전> 연구는 주로 춘향의 인물 형상, 언어 표현, 주제의식, <춘향전>에 나타난 민족의식, 중국 문학 또는 문화와의 비교 방면에 걸쳐 있다. 특히 비교문학 연구방법을 채택한 글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런데 중국의 일방적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 수용이란 측면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와 함께 한계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가 중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미처 다 찾아보지는 못했을 터인데, 더욱이 논의가 성글고 거칠어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이다음에 계속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논의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쪽 연구들을 거의 다 찾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작으나마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번역본

- 外文, <春香傳>, 滿洲文藝家 編, 『藝文志』(創刊號), 長春: 月刊滿洲社, 1939.6.
莊志 改編, 『越劇劇本<春香傳>』, 新文藝出版社, 1955.
冰蔚·張友鸞 譯, 『春香傳』, 北京: 作家出版社, 1956.
冰蔚, 木弟 譯, 『春香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0.
[韓]許世旭 驛, 『春香傳』, 台北: 台灣商務印書館, 1967.
[韓]柳應九 譯, 『春香傳』, 北京: 新世界出版社, 2006.
丁生花 譯, 『春香傳』, 北京: 北京民族出版社, 2007.
薛舟·徐麗紅 譯, 『春香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0.

2. 재창작 춘향전

- 金仁順, 『春香』, 北京: 中國婦女出版社, 2009.

3. 단행본

- 張朝柯, 『春香傳的創作及影響』, 遼寧: 遼寧大學出版社, 2001.

4. 박사학위논문

- 王慧, 『<春香傳>의 文化人類學解讀』, 北京: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5. 석사학위논문

- 류유, 『춘향전의 예술생명력에 대해』, 연변대학 석사학위논문, 1990.
리춘화, 『춘향의 성격구조에 대한 원형비평접근』, 연변대학 석사학위논문, 1999.
徐英淑, 『論<春香傳>中的倫理思想』, 吉林: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0.
石曉玲, 『略論韓國李朝小說對中國明代小說的受容』,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安錦姬, 『<春香傳>의 敘事結構』, 吉林: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姚莉, 『朝鮮言情漢文小說研究 - 以<春香傳>爲中心』,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李仁景, 『越劇<春香傳>與唱劇<春香傳>的比較研究』, 上海戲劇學院 碩士學位論文, 2010.
朱文靜, 『<西廂記>與<春香傳>主人公形象的比較研究』, 對外經貿大學 碩士學位論

文, 2010.

崔美玲, 「<春香傳>의中國文化因子」, 吉林: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樸文華, 「<春香傳>의二重審美結構與中國思想、文學之關聯研究」, 吉林: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房威, 「電視劇<豪傑春香>和古典小說<春香傳>의關聯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王慧, 「從<春香傳>到<春香> - 論金仁順對傳統小說的個性化演繹」,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鄭春林, 「<春香傳>對<西廂記>의接受」,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鄭怡鵬, 「目的論視角下的《春香傳》兩種中譯本對比研究」,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6. 학술지 소논문

龔牧, 「朝中人民友誼的花朵: 越劇<春香傳>의演出」, 『中國戲劇』, 1955年 第2期.

王文娟, 「我怎樣創造春香的形象」, 『越劇報』, 北京, 1955.6.

王文娟, 「回憶在朝鮮演出的日子」, 『中國戲劇』, 1960年 16期.

莊志, 「前記」, 『越劇叢刊』 第1集, 上海文藝出版社, 1962.

翹翹, 「韓國<春香傳>與中國文學主題的幾種比較研究」, 『從木柵到西雅圖』, 台北: 幼獅出版社, 1976.

黃微光, 「<鶯鶯傳>與<春香傳>之比較研究」, 台北: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學研究所, 1978.

鄭判龍, 「朝鮮優秀的古典名著<春香傳>」, 『延邊大學學報』, 1979年 3期.

於寒, 「試析<春香傳>藝術特色」, 『金達萊』, 1982年 1期.

張朝柯, 「<春香傳>의民族藝術特色」, 『外國文學研究』, 武漢: 華中師範大學 華中師範大學文學院, 1983年03期.

허문섭 등, 「춘향전의 민족특색에 대하여」, 『조선고전작품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85.

張佑周, 「一顆璀璨奪目的東方明珠 - 簡評朝鮮古典名著<春香傳>」, 『龍岩師專學報』, 1989年 3期.

顏宗祥, 「春香傳與中國話本小說」, 『國外文學』, 1990年 2期.

管三元, 「<春香傳>與中國古典文學」,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保定: 河北大學, 1990年04期.

楊乃晨, 「<春香傳>是一支轉播與發展中國文化的嬌豔之花」, 『東疆學刊(哲學社會科學版)』, 1991年 第1期.

- 韓捷進, 「朦朧現代意識的東方古典愛情－談〈春香傳〉與〈西廂記〉的愛情描寫」, 海南大學學報, 1991.
- 翁敏華, 「從韓國“唱劇”看中韓古代演藝文化的交流」, 『戲劇藝術』, 1993年 4期.
- 何鎮華, 「論韓國三大古典小說的藝術特色: 〈春香傳〉, 〈沈清傳〉, 〈興夫傳〉」, 『國外文學』, 1995年 3期.
- 허련화, 「춘향전에 끼친 중국문학의 복합적인 영향」, 『조선학 한국학 학생논문집』, 연변인민출판사, 1997.
- 李春花 著, 雷子金 驛, 「〈春香傳〉: 朝鮮民族深層文化意識的再現」, 『延邊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Vol.32 No.3, 延吉: 延邊大學, 1999.8.
- 崔兄全, 「韓國小說在中國的傳播研究」, 『東疆學刊(哲學社會科學版)』, 1999.
- 崔溶澈, 「〈春香傳〉漢文本的形成及其版本特色」, 『域外漢文小說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台北: 東吳大學, 1999.
- 張敏華, 「〈春香傳〉的創作及影響」, 瀋陽遼寧大學出版社, 2001.
- 徐英淑·陳豔玲, 「論〈春香傳〉中的理想人格」, 『東疆學刊(哲學社會科學版)』 19卷, 2002年 第3期.
- 高銀河, 「〈西廂記〉與〈春香傳〉傳演中韓的愛情經典」, 『戲劇之家』 Vol.52 No.2, 2003.
- 李騰源, 「試論朝鮮〈廣寒樓記〉評點的特點-與金聖歎〈西廂記〉評點比較」, 『南京師範大學學報』, 2003年 5期.
- 王素君, 「春香與鶯鶯的形象比較」, 『南京廣播電視大學學報』, 2006年 1期.
- 韓霞, 付嬌, 「〈春香傳〉和〈杜十娘〉的比較」, 『安徽文學』, 合肥: 安徽省文聯, 2006年 08期.
- 張伯偉, 「導言 域外漢籍研究 - 一個嶄新的學術領域」, 壹大出版中心, 2007.
- 孟昭毅, 「唱劇〈春香傳〉的敘事闡釋」, 『印象: 東方戲劇敘事』, 崑崙出版社, 2007.
- 溫娉婷, 「淺析〈春香傳〉和〈玉堂春〉的女性形象」, 『法制與社會(教育文化版)』, 長春理工大學人文學院, 2009年 8月(中).
- 洪永春, 李永求, 「從〈春香傳〉到〈春香〉: 傳奇的消解與置換」, 『通化師範學院學報』 Vol.31 No.7, 2010.7.
- 莊宋青, 「從理慾關係看〈春香傳〉和〈玉堂春〉」, 『群文天地』, 2010.
- 付春曉, 「中韓兩國文學的完美結晶 - 〈春香傳〉」, 『安徽文學』, 合肥: 安徽省文聯, 2011年6期.
- 王鵬·李晶, 「論〈春香傳〉的語言特色」, 『棗莊學院學報』 Vol.28 No.3, 2011.
- 尹巍, 「〈西廂記〉和〈春香傳〉敘事之比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Vol.44 No.4, 2011.

- 付春曉, 史榮榮. 「春香與鶯鶯的女性形象比較」, 『劍南文學(經典教苑)』, Vol.56, 2011.
- 李保光. 「<玉堂春>和<春香傳>的比較研究」, 『濟南山東大學』, 2011.
- 王成. 「淺談古典小說《春香傳》的問體特色」, 『文藝天地』, 2012.2.
- 樸金鳳. 「<春香傳>：中國與朝鮮文化交流的結晶」, 『安徽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vol.29, 馬鞍山: 安徽安徽工業大學, 2012年3月.
- 張靜. 「簡評朝鮮古典小說<春香傳>」, 『統計與管理』, 石家莊: 河北省統計科學研究所, 2013.1.
- 孟柱億, 萬玉波. 「“演話劇學漢語”特色口語課程分析 - 以<春香新傳>教學、演出爲例」, 『國際漢語教育』, 北京: 北京外國語大學, 2013年02期.
- 李建東. 「<春香傳>敘事與人物語言的中國情結」, 『鹽城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Vol.26 No.1, 鹽城: 鹽城工學院, 2013.3.
- 張豔. 「<春香傳>愛情主體探究」, 『開封大學學報』 Vol.27 No.2, 開封: 開封大學學報編輯部, 2013.6.
- 金春蓮. 「<春香傳>和<西廂記>之主體意識比較」, 『邊疆經濟與文化』, 哈爾濱: 黑龍江省邊疆經濟學會, 2014年01期.
- 陳敬容. 「<桃花扇>和<春香傳>的比較研究」, 『文學教育(下)』, 2014年 2期.
- 李美丹, 成意. 「淺析<春香傳>中春香的封建叛逆性」, 『現代語文』, 2015.3.
- 許建昆, 崔圭萬. 「試論韓國《春香傳》故事中青春與愛情的交響」, 『蘇州教育學院學報』 Vol.32 No.5, 蘇州: 蘇州教育學院, 2015年10月.

7. 신문·잡지기사

洪非. 「<春香傳>及其演出的意義」, 『安徽日報』, 1955.1.23.

8. 그 밖의 참고문헌

- 김장선. 『중국에서의 <춘향전> 번역 수용 연구(1939-2010년)』, 서울: 역락, 2014.
- 진영. 「중국판 소설 <춘향전>의 연구」,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6, 월인, 1999.
- 양희석.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 越劇<春香傳>初探」, 『공연문화연구』 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3.
- 이진원. 「월극(越劇) <춘향전(春香傳)>과 창극(唱劇) <홍루몽(紅樓夢)> - 중국 희극과 한국 창극의 교류에 관한 소고」, 『관소리연구』 16집, 관소리학회, 2003.
- 윤진현·이사유. 「월극 <춘향전>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41집, 민족문학연구소, 2009.
- 윤혜미. 「최승희 무용활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9.

학정산, 『중국에서의 <춘향전> 수용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

왕비연, 『1956년 북경 작가출판사에서 출판한 <춘향전>의 번역 양상에 대한 고찰』, 『민족어문학회』 71, 2014.

왕비연, 『許世旭 역본 <春香傳>이 번역양상에 대한 고찰』, 『중국학논총』 43,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4.

왕비연, 『春香傳의 中國語 翻譯 및 變容의 樣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韋旭昇, 『韓國文學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 (1986년에 북경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朝鮮文學史』를 이름만 바꾸어서 낸 것)

高義龍, 《越劇史話》, 上海: 海文藝出版社, 1991.

李愛順, 『崔承喜與中國舞蹈』, 北京舞蹈學院學報, 2005, 4.

金仁順 等8人, 『關於長篇小說<春香>的對話』, 『作家』, 長春: 吉林省作家協會, 2010年24期.

張昭兵, 王海濤, 『論金仁順長篇小說<春香>的敘事突圍』, 『小說評論』, 西安: 陝西省作家協會, 2012年02期.

梅蘭, 『淺析金仁順小說中的冷處理 - 以長篇小說<春香>爲例』, 『名作欣賞』, 太原: 北嶽文藝出版社, 2012年 18期.

R.Wellek, "The Crisis of Comparative Literature", *Concepts of Criticism*,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3.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Acceptance & Research of
'Chunhyangjeon' in China

Jo, Seong-Jin

This article is to consider the current stage of translation into Chinese, acceptance & the academic research of 'Chunhyangjeon(춘향전)' which is famous for representative classical story of Korea. Especially, 'Chunhyangjeon' was dramatically introduced to Chinese people through the performance of Yue drama 'Chunhyangjeon' in 1954, and then the study on 'Chunhyangjeon' was begun in earnest by Chinese researchers.

This article is significant for examining the current stage of the research regarding 'Chunhyangjeon' through both doctoral and master's theses and papers proposed in China. Such researches and essays, which include 1 doctoral thesis, 14 master's theses, and about 46 excerpts from various academic journals, mainly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tagonists, language expressions, central theme, ethnic consciousness, and overall comparison of these aspects to those of Chinese literature or culture. As most of them have used comparative literature approach in researches of one of the most famous Korean classics, it is clear that since China-centered perspective already dominated the mainstream and Korea still plays a little role, a limit has been set along the outcome which may possibly be achieved in the future.

keywords: 'Chunhyangjeon', Yue drama 'Chunhyangjeon', study of 'Chunhyangjeon'.

접수일자: 2016. 9. 30. 심사기간: 2016. 10. 1.~2016. 11. 10. 게재결정: 2016. 11. 10.
